89. 죽음은 소련의 대평원에서는 아프리카와는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아프리카에서도

영국군이 발사하는 격렬한 포화로 인해 전선에서의 시체는 오랫동안 묻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 뒹굴고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태양의 움직임은 빠르게 다가왔다. 밤이 되면 숨이 콱 막힐 듯한 공기가

바람과 함께 전해져 왔다. 공기가 사자의 몸에 충만하고 사자들은 이국의 별빛 아래

유령처럼 자리에서 꿈틀꿈틀 일어났다. 마치 아무런 희망도 없는 최후의 전투에

참가라도 하고 있는 듯이. 그것도 이튿날이 되면 이미 움츠려들기 시작하여 그대로 땅

속으로 잠겨 드는 것처럼 대지에 방치되고 있었다.

그것은 나중에 운반할 때는 몹시 가벼워져 있었다. 몇 주일 지나서 발견된 시체는

해골만이 남고 갑자기 커진 군복 속에서 바짝바짝 말라갔다. 그것은 모래와 태양과

바람 속에서 건조해진 주검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소련에서의 죽음은 기름으로

인하여 끈끈하고 악취를 풍겼다.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이 녹기 시작했다. 한 달 전에는 2 미터 이상이나 쌓였던 눈이었다. 파괴된

마을은 처음에는 까맣게 그슬린 지붕만이 보였다.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눈 속에서

묵묵히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창이 얼굴을 내밀었다. 3, 4일이 지나자 아치로

된 입구가 나타났다. 나중에는 눈 속으로 통할 수 있는 층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눈은

계속해서 녹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체는 오래 전부터 파묻혀 있었다. 마을에서는 11월에서 다음 해 4월에 걸쳐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다. 점령했다가는 포기하고 방치했다가는 도로 탈환했다. 그후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삽시간에 시체들을 깊이 묻어 버려 위생병들조차 쉽게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치 간호사들은 피로 물들인 침대 위에 시트를 펼치는 것처럼

거의 매일 내리는 흰 눈이 그 비극을 잠시나마 가려주었다.

최초로 나타난 것은 1월의 전사자였다. 이것은 제일 위에 빳빳하게 누워 있다가 4월

초에 눈이 녹기 시작하자 모습을 드러냈다. 시체는 바짝 얼어붙어 있었으며 얼굴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시체는 마을 뒤에 있는 언덕에 마치 널빤지를 묻는 것처럼 매장되었다. 먼저 눈을

삽으로 치우고 얼어붙은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

그것도 독일인의 시체만 묻어주고 소련인의 시체는 그대로 목장 안에 버려뒀다.

소련인의 시체까지 매장해줄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아군이 이 마을을 장악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연대는 후퇴하고 있다. 소련인의 시체는 현재

진격중인 소련군이 직접 매장하면 될 일이었다.

12월의 전사자 곁에서는 1월의 전사자가 갖고 있던 무기가 발견되었다. 총이나

수류탄, 그리고 철모는 시체보다 깊숙히 묻혀 있었다. 시체가 걸치고 있던 헐렁해진

군복 안쪽에 붙어있던 명찰은 쉽사리 떼어낼 수 있었다. 마치 익사하였을 때처럼 잔뜩

벌린 입에는 물이 괴고 있었다.

이런 시체는 운반할 때는 그대로 경직되고 있었으나, 들것에 실려 움직일 때마다

한쪽 다리가 흔들려 사자가 누군가를 부르는 듯이 보였다. 동공은 젤리처럼 광채를

상실하고 눈이 녹아 천천히 흘려 나왔다. 마치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며칠씩이나 얼어붙었다. 눈의 표면이 잔뜩 굳어지면서 얼음이 되었다. 눈은

줄지 않았다. 마침내 바람이 불어대기 시작했다.

흰눈 속에서 회색의 물체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허공을 향하여 잔뜩 움켜 쥔

주먹이었다.

"저기에도 하나 있어." 샤우워가 말했다.

"어디?" 임메르만이 물었다.

"저기 교회 앞이야. 파낼까?"

"소용없어. 바람이 불면 자연히 눈이 녹겠지. 저기는 눈이 2 미터는 쌓여 있을 거야.

이 마을은 상당히 낮은 지대에 자리잡고 있어. 그래도 자네는 얼음 속에 구두를

적시고 싶은가?"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샤우워는 야전취사장 쪽을 바라보았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무엇을 먹여줄지 모르겠군."

"캐비지야. 그래 봐야 돼지고기가 빠진 감자이지만"

"캐비지라 이번 주에 들어서서 벌써 세번째."

샤우워는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일 년 전에는 커다란 무지개와 같은 오줌을 누었었는데."

그는 괴로운 듯이 말하였다.

"군대식으로 당당하게 말야. 나는 기분이 좋았지. 식사는 일급이었고 오직

전진뿐이었어. 그래도 좀처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소변도 군인처럼 볼 수 없게 됐단 말야. 아무런 희망도 없어."

임메르만도 배설 동작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줌 싸는 것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 군대만 그만둘 수 있다면."

"나도 그래. 그렇지만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영원히 군대를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죽을 때까지 영웅감이야. 아직도 무지개 같은 오줌을 갈기는 자들은

친위대 놈들뿐 일거야."

"그자들이라면 가능할 거야. 추잡한 일은 우리들이 해치우고 있는데 명예는 그들이

가로채고 있어. 우리는 2주일이나 3주일 동안을 싸워 겨우 도시를 점령하지. 그러면

뒤에 처진 친위대들이 와서 우리들보다 앞서 당당하게 입성하는 거야. 그자들이

환대를 받고 있는 꼴이라니! 그들은 언제나 두터운 외투에 고급장화를 신고 먹음직한

고깃덩어리도 도맡아 버리지."

임메르만은 히죽히죽 웃었다.

"그렇지만 그놈들도 이 도시를 가로채지는 못했어. 놈들도 지금은 우리와 같은 꼴을

하고서 퇴각하거든."

"우리와 같지는 않지. 우리는 사로잡은 자들을 사살하거나 불태우지는 않으니까."

"자네 오늘은 왜 그러지?" 임메르만은 언쟁을 중단하면서 놀란 얼굴로 물었다.

"자네는 갑자기 인간적인 면에서 얘기를 시작했어. 그렇지만 슈타인브레너가 엿듣지

않도록 조심해. 헌병대에 끌려가고 싶지 않거든. 저기 교회 앞의 눈이 내려앉는군.

이번에도 시체의 한쪽 팔이 나타나겠지."